

소 교리문답 제24문

1. 오늘의 공부

제 24 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을 수행하십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히:1-2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24문의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어떻게 다르기에 이처럼 둘로 나누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죠? (성경책에 있는 성경 목록 표를 펴 놓고 확인시켜주세요) 이사야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다음에는 뭐가 있죠?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사야부터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모두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엘리사란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야란 선지자도 나와요.

이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선지자의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하지 않았습디다.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미워했고 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대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보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결국 예수님을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말을 하면 듣기 싫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싫어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옥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주셨으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하나님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성령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②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③ 왜 우리에게 성령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④ 성령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선지자 직”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정리된 생각을 말해 볼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25문 :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贖償)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6. 미리 읽을 성구

히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